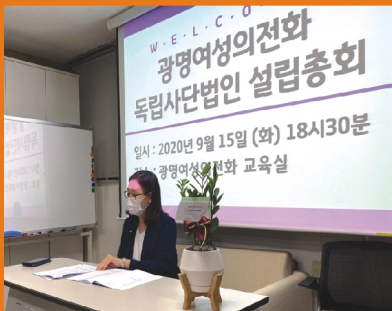


내 이름을 불러주는 광명여성의전화



(사)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주 소 광명시 도덕공원로 64-1, 3층
E - Mail kmwhl@hanmail.net
페 이 스 북 www.facebook.com/kmwhl
사 무 국 02)2614-7370
가정폭력상담 02)2060-2545

F A X 02)2614-7673
홈 페이지 www.kmwhl.org
인스타그램 instagram/km_hotline
상 담 소 02)2060-0245
성폭력상담 02)2616-2545



표지: 독립사단법인 설립총회

글의 순서

[권두시]	2
[여는글]	3
· 독립사단법인 환영사 / 정애숙 대표	
[특집글]	4~7
· 독립사단법인 이모저모	
· 독립사단법인 축하합니다! 회원들의 한마디	
· 독립사단법인 설립취지서	
[미술 & 젠더]	8
· 여 · 작 · 소 - 최초의 누드자화상을 그린 파올라모데존베케	
[회원글방]	9
· 부모를 위한 성교육 참가 소감문 / 김영화, 김태림 수강생	
[생활활동]	10~12
[상담통계]	13
[회원알림]	14
[소중한후원]	15

발 행 처 (사)광명여성의전화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64-1, 3층

발 행 일 2020. 10. 01

이 메 일 kmwhl@hanmail.net

발 행 인 정애숙

편집위원 김은희, 류미숙, 오영민
유서연, 이다연, 정애숙

전 화 02-2614-7370 / 02-2060-0245

상담전화 02-2060-2545 (가정폭력 상담)
02-2616-2545 (성 폭 력 상담)

F A X 02-2614-7673

이게 인생의 레시피란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날 안아주면서
엄마가 말씀하셨다
매년 네가 정원에 심은
그 꽃들을 생각하렴
꽃들이 네게 가르쳐줄 거란다

사람도 결국

시들고

낙엽지고

뿌리내리고

솟아올라야

꽃을 피운다는 걸

루피 카우르

<해와 그녀의 꽃들> 중에서

루피 카우르 (인도 출신 페미니스트 시인)

2014년 첫 번째 시집인 [밀크 앤 허니]를 출간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1년 이상 오르며 300만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 그 후 30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2017년 두 번째 시집 [해와 그녀의 꽃들]을 출간했다. 사랑, 상실, 트라우마, 치유, 여성, 이민, 혁명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는 시인이다.

독립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원년을 환영하며



정 애 숙

(광명여성의전화 대표)

1996년 6월 19일 광명여성의전화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설립되어 여성 폭력과 여성인권 문제를 지역사회에 이슈화 한지 어언 22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이래 여성의전화는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활동 내용을 확대하면서 지역여성운동과 회원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여성의전화 광명지부로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독립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상담과 이에 따른 인권지원, 다양한 정책 제안활동과 교육,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의식과 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의 성과를 이어가되 그 성과에 안주하고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꿈을 꾸고 실천하겠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정책을 만들고, 여성주의 확산을 위한 문화공연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폭력 없는 평화세상을 만드는 큰 주춧돌로서 독립 사단법인으로 우뚝 서서 명실상부한 여성의전화 활동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2020년을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모두 건강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독립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를 위해 애써주신 발기인, 이사, 회원, 활동가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모저모

독립사단법인을 위한 설립총회

5/26 : 한국여성의전화 1차 이사회

한국여성의전화 1차 이사회에서 광명여성의전화 독립법인화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6/18 : 광명여성의전화 2차 이사회

광명여성의전화 2차 이사회에서 독립법인화에 대한 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7/13 : 1차 T.F 모임

무더운 여름, 독립사단법인을 위한 T.F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서류 등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 8월 : 리서치 & 타기관 방문

독립사단법인화 절차에 대해 리서치하고, 수원여성의전화 사무국에도 방문했습니다.

8/11 2차 T.F 모임

한달 여만에 다시 모여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살폈습니다.

8월 : 공증변호사, 법무사 확정

9/1 : 독립사단법인화 발기인대회

독립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발기 이사들이 모여 선언하는 자리로 발기인 대회를 치렀습니다. 설립취지서를 함께 마련하고, 독립사단법인화의 의미를 부여하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1차 T.F 모임



2차 T.F 모임



발기인 대회

9/15 : 독립사단법인을 위한 설립총회



독립사단법인과 설립총회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주신 참석 회원님들, 그리고 위임으로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더 열심히 전진하는
광명여성의전화가 되겠습니다!



▲독립사단법인 설립총회 자료집



▲그동안 사업감사로 수고하신 임삼례 감사님께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대표, 이사, 전문위원님들의 떡케이크 커팅~



▲양성평등주간기념 광명시 유공표창을 받은 소윤희 이사님 축하합니다!

회원들의 축하 한마디!

(강미숙 회원) "독립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축하축하 드립니다~~

(강은숙 회원) 광명여성의전화가 23년만에 독립하네요. 축하축하합니다^^ 수고하신 정애숙 회장님과 활동가. 힘을 보탠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1998년에 첫 창립총회 할 때만큼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인권 향상과 성평등사회를 위해 함께 해요~

(김영자 회원) 광명여전의 독립사단법인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활동 주욱~~펼쳐나가길 응원합니다!!

(김영화 회원) 그동안 광명여성의전화에서 애써주시고,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애정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류미숙 회원) 광명여성의전화 독립사단법인 설립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회원님들 축하드려요.^^^ 다함께 힘을 모아 또 새로운 광명여성의전화 역사를 만들어요~~~

(박정훈 회원) 광명여성의전화 독립사단법인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만큼 앞으로의 앞날이 아름답기를 응원드립니다~^^^♡

(박종기 회원) 평화와 인권, 새로운 시작! 광명지역 여성운동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이다연 회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경선 회원) 독립의 의미를 크게 세워갈 광명여성의전화를 축복합니다.



광명여성의전화 독립사단법인 설립 취지서

광명여성의전화는 모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나아가 가정·직장·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광명여성의전화는 1998년 11월 18일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광명지부로 첫발을 내딛어, 22년 동안 회원들과 함께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여성인권을 향상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해 활동하였다. 인권지원, 교육·문화·홍보, 정책·조사연구, 지역여성운동, 여성의 정치·경제 세력화, 연대사업,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등을 통해 여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힘써왔고 지역의 의식과 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꾸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회원 확대와 활동가 및 회원들의 역량 강화, 운영 체계 정비,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을 통해 조직 강화에도 힘을 쏟아,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광명여성의전화는 설립 초기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해왔고 2000년에 부설로 가정폭력상담소를, 2020년에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를 개소하여, 여성주의상담을 바탕으로 젠더기반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의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인권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의전화의 여성주의상담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결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일깨워주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기반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여성운동의 일환이다.

이제 22살이 된 광명여성의전화는 한국여성의전화 광명지부에서 독립하여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확장된 여성운동을 해나갈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는 모든 제도와 관습을 없애고, 성평등한 문화와 제도 강화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고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2020. 9. 15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여·작·소 “여성 작가를 소개합니다”

정리 : 이다연(활동가 · 상담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미술 작품을 바라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광명여성의전화 소식지 인문학 코너로 ‘미술과 젠더-여·작·소’가 이어집니다. 미술사에서 남성 작가들에게 가려져온 여성 작가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여성주의적 작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작품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발견해보며 여성주의 시각을 확장시켜보는 것도 좋겠지요?

최초의 누드 자화상을 발표했던 여성 작가, 파울라 모더존 베커

“내가 아는데 나는 아주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슬픈가? 추제가 길다고 더 아름다운가? 내 삶은 하나의 추제, 짧지만 강렬한 추제이다. (중략) 그러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안에서 사랑이 한번 피어나고 좋은 그림 세 점을 그릴 수 있다면 나는 손에 꽃을 들고 머리에 꽃을 꽂고 기꺼이 이 세상을 떠나겠다.”
(파울라의 일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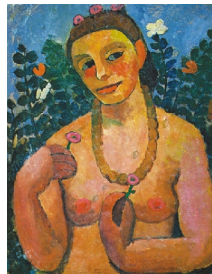
파울라 모더존-베커(1876~1907)는 독일 드레스덴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칼 발터마르 베커는 건축 엔지니어였으며 파울라가 교사로 자라기를 바랐다. 하지만 파울라는 베를린 여류화가협회 미술학교에 다니며 미술에 대한 꿈을 쫓았다.

이후 브레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예술가공동체마를 보름스베데의 작은 마을로 가서 여러 화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곳에서 파울라는 남편이 될 오토 모더존을 만나게 된다. 당대 화가들이 자연 속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집중한 반면, 파울라는 자신만의 색감과 질감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다.

주변 화가들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였지만, 파울라는 굴하지 않고, 풍경 외의 것들에도 눈을 돌리며 지역 주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파울라가 그린 초상화는 모델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감정까지 전달했다. 하지만 파울라의 화풍과 기법은 당시 유행하던 것과는 달랐다. 그곳에서 화가 오토모더존과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함께 작업하기도 했지만 그 곳의 화풍과 다른 관점을 고수하던 파울라는 결국 보름스베데를 떠나 파리로 가게 된다.

1903~1905년 사이 파리에서 파울라는 세잔, 고갱, 고흐의 작품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특히 고갱의 영향을 받아 [호박 목걸이를 걸고 있는 자화상]과 같은 걸작을 그려낸다. 미술사 속에서 남성 작가들이 여성 또는 여신의 누드화를 섹슈얼하게 그린 것과 달리 파울라의 누드 자화상은 소박하고 인간적인 느낌을 준다. 성적 대상이 아닌 인간 파울라 자체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파울라는 모성애를 주제로 [발가벗고 누워 있는 엄마와 아기]와 같은 작품을 다수 남겼다. 화가로서 걸작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과, 남편의 곁에서 아이를 낳고 어머니로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그녀는 31살에 아이를 가졌지만 출산 후유증으로 요절하고 만다. 비록 생전에는 화가로서 이름을 알리지 못했지만 후대에 재평가 받으며 여성 화가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은 미술관을 개관하게 된다.



호박 목걸이를 한 반신누드 자화상(1906, 바젤 미술관)



옆으로 누운 엄마와 아이(1906, 파울라 모더존 베커 미술관)

영화로 만나는 여·작·소



파울라(2017, 독일, 크치스찬 슈비초브 감독)

영화는 “그림은 때려치고 취직 또는 결혼이나 하라”는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예술가공동체로 들어가는 파울라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풍경을 그리는 기존의 기법을 탈피해, 파울라 스스로 느끼는 색과 형태를 그리고자 한다. 하지만 여성화가라는 이유로 화가 남편과 이웃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다. ‘여성스럽지 못한’ 괴팍하고 고집스러웠던 화가 파울라의 일생을 그려낸 영화다.

부모를 위한 성교육 <내 아이가 연애한다> 교육생 소감문

☆ <부모를 위한 성교육> ☆

내 아이가 연애한다

알면 쓸모있는 성평등&성교육

일 시 : 9월 9일, 10일, 16일, 17일 (수목 오전 10-12시)

장 소 : 광명시평생학습원

대 상 : 학부모 신청순 30명 (교육비 무료)

문 의 : 02-2060-0245 / 02-2614-7370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창의기획공모사업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김영화 (부모를 위한 성교육 교육생)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폭력 예방교육 강사과정을 이수한 저는 폭력 관련한 교육을 들으며 차별과 평등, 학대, 성범죄 등에 관한 이슈에 대해 접할 수 있었고, 그동안 무심하게 넘겼던 사안들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자녀의 엄마로 지내면서 자녀가 성장할수록 그 연령대에 맞는 성교육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거부감 없이 성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을지 늘 막막했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상 계획된 대로 성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한 바,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에서도 성에 대하여 편안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일도록 ‘내가 부모로써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그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혀 없었었을까요.

폭력 예방 강사과정을 연수하면서 저의 무지에 대해 매번 느끼게 되었고, 폭력과 차별들에 대한 책들을 읽으며, 제가 그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 이와 같이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 <부모를 위한 성교육 - 내 아이가 연애한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및 이슈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베저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범죄들이고,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미디어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외면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게 되었으며, 부모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강사님들의 경험들이 녹아든 강의 내용들은 앞으로 제가 가정에서 지도할 때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녀들을 지도할 때에 부모로서 지치고 피로운 시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저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광명여성의전화에 깊이 감사드리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나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 좀 더 안전하고 밝은 사회에서 대한민국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잘 자라났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김태림 (부모를 위한 성교육 교육생)

안녕하세요. 3학년, 5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 시기면 한참 전자기기와 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도 아이도 그럴까요? 저는 좀 더 일찍 큰아이 5세 때 성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남자아이 엄마가 성교육에 관심 많다는 말도 여러 강의를 접하면서 듣는 말이었고요.

유아기 때 일이었어요. 큰아이가 5살이 된 2월에 어린이집에서 자위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죠. 가는 걸음 걸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아이가 어떻게 행위를 한다는 거지? 등등 복잡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은 후 지인에게 도움을 얻어 성 관련 연극을 가족과 함께 보고 구성에 선생님의 팻케스트를 독파하면서 처음으로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안도감으로 그렇게 성교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령별 성교육을 배워오다 이렇게 3, 5학년으로 아이는 자라게 되었고, 올 초에 일어난 N번방 사건으로 젠더 감수성, 사회·문화적 원인들이 부각되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위기의식을 느끼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내 아이가 연애한다”라는 문구의 호기심으로 시간을 내서라도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1주일에 한 번 하는 일정이 아닌 일주일에 2일로 집중도 있게 배울 수 있었고, 성역할, 성의식, 성인지, 젠더 불평등 등 중요 내용을 다루어서 매번 강의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성교육을 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알려줄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와 가정에서부터 의식 변화가 필요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어른이 된 부모가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가 성교육의 시작이라는 게 신선했습니다.

의식과 문화가 확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니 부모와 선생님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교육과 함께 아이들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을 <광명여성의전화>에서도 촘촘히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여성의전화 2020 상반기 평가

7월 21일~22일 이틀 동안, 본회의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 하반기 활동도 파이팅!



수고했어 오늘도! 퇴근길 안전하게 캠페인

7월 24일 철산역에서 <수고했어 오늘도! - 퇴근길 안전하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광명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를 홍보했습니다.



면접상담실 · 전화상담실 리모델링

8월 27일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G하우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면접상담실과 전화상담실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낡은 바닥재를 교체하고, 안전한 상담을 위해 흡음재를 설치했습니다. 더 깨끗해진 상담실에서 내담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부모를 위한 온라인 성교육 실시

9월 9일부터 17일까지 4회기에 걸쳐 학부모 대상 성교육 [내 아이가 연애한다] 대중강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줌(zoom) 온라인 강의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색다른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딸아들 성교육 캠프 기획회의

9월 22일 [딸아들 성교육 캠프 기획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0월 17일, 24일 열리는 '성교육 캠프'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인데요, 부모성교육 참여자들이 캠프 모듬 진행자로 활동하기 위해 기획회의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성교육을 해주기 위해 긴~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손정우 판결 규탄 집회 참가

7월 10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분노한 사람들, 우리가 간다!>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분노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7월 14일 광명소방서에서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지진 대피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안전 제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관련 공동행동

7월 28일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에 참여했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는 언제나 피해자의 곁에서 그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그 날까지 분노하고 목소리 내며 함께 싸우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신입활동가 교육

9월 4일 한국여성의전화 신입활동가들을 대상으로 E.L.F SEED 교육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전국 곳곳에서 활동가들이 모여 다함께 연대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을 텐데... 아쉽지만, 화면 속에서 만나는 활동가들의 모습도 참 반가웠어요. 그리고 회장님, 소장님이 몰래 보낸 깜짝 영상도 등장해서 활동가들이 감동받았다는 후문이... 더욱 성장하는 광명여전 활동가들이 되겠습니다!



광명만남의 집 사회복지실습생 기관 방문

6월 18일 광명만남의 집 사회복지실습생 5명이 기관 방문을 오셨어요. 기관을 소개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되시길 광명여성의전화가 응원합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기관 방문

6월 23일 광명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기관 방문을 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함께 연대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민주시민교육, 성평등 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결의대회

6월 30일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본회 정애숙 대표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광명시민 1000여명이 모여 지역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은 공익활동을 위한 '공익작당모의' T.F

광명시민단체협의회에서 광명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T.F를 조직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도 수집하고 토론회를 열어 공론의 장도 만들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더 나은 공익활동을 위한 공익작당모의의 장

더 나은 공익활동을 위한 공익작당모의 T.F팀의 첫 외부 공식 활동으로 작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명시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모여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2020년 7~9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상담통계

(단위: 건)

구분	총계	가정폭력 상담	성폭력 상담	기타 상담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7월	114	76	20	0	1	2	0	7	0	7
8월	112	72	23	0	0	2	1	8	0	5
9월	107	73	11	0	0	5	0	10	0	7
총계	333	221	54	0	1	9	1	25	0	19
누계	1197	810	186	1	37	21	2	84	0	52

◆ 여성주의 상담이란?

여성의전화는 여성주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내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상담입니다.

여성주의 상담은 단순히 상담 이론이나 기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소외되고 평가절하되었던 여성을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전환된 가치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 여성주의 상담의 4가지 원리

1.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 내담자가 겪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된 문제입니다.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가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임을 알게 합니다.
2.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하다** : 내담자는 자신의 삶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이며, 상담 관계가 권력화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역량강화** : 내담자들이 문제 상황이나 관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역량 강화를 통해 변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4. **여성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기** : 그동안 평가되지 않았던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긍정하고 재평가하도록 촉진합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창의기획공모사업

알면 쓸모있는 성평등&성교육

딸·아들을 위한 성교육 캠프

"성(性)장하는 너와 나, 우리"

날짜: 1차) 2020년 10월 17일 (토)
2차) 2020년 10월 24일 (토)

※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차수별 교육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합니다!
※ 1차와 2차의 교육 내용이 동일합니다. (두 날짜 중 가능한 날로 택1)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12~1시 점심시간)

장소: 광명여성의전화 교육실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선착순 신청)

교육비: 무료

신청방법: 구글 폼 입력

신청문의: 02-2060-0245 / 02-2614-7370

교육내용: 모듈활동을 통한 성의식 향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에 따라, 교육 일정이 통합·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9월 성평등 캠페인

추석맞이 온라인 백일장 삼행시짓기 대회

기간: 2020년 9월 25일 ~ 10월 11일

대상: 광명여성의전화 회원 또는 일반인 누구나

제시어: 한가위/성평등/광명여전 (택1)

주제: 성평등 사회 만들기, 성평등한 추석 명절 보내기

참여방법: 구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링크: <http://bit.ly/광명여전캠페인>

* 장원에 뽑힌 5분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 당선작은 10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여성폭력생존자 말하기 대회

-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 시간: 오전 10시~12시
- 장소: 광명시평생학습원 대강당
- 방청: 개별 신청 회원 및시민
(선착순 인원 제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장소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 사업내용: 예술인파견사업 대상기관
으로 선정되어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
과 광명여성의전화를 알리기 위한 홍
보물 제작(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
- 예술인분들의 열정으로 11월경 '세계
여성폭력추방주간 여성폭력 생존자
말하기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결과물
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 슬기로운 회원들의 슬기로운 기념일 생활 ★

축하받고 싶은 나만의 특별한 기념일을
문자후원과 함께 보내주세요!
광명여성의전화에서 온마음을 다해
축하드리겠습니다.

문자후원: #2540-1998
(1건당3000원)

정회원 명단 (2020년 7~9월)

강미숙	기희숙	김수아	김지오	류미숙	박은경	신영옥	유명자	이미혜	이은영	임송희	조상희	최진아
강연재	김경미	김수연	김지희	명경희	박재한	신정민	유서연	이봉임	이은혜	임영숙	조순아	하숙례
강은숙	김경혜	김수영	김진필	문은임	박정훈	신효경	유성희	이상진	이은혜	임주영	조옥순	한국현
강은아	김경희	김수진	김철희	문은희	박종기	심중식	유영미	이상화	이인숙	전미라	조은하	한영수
강주례	김기영	김영숙	김춘애	문창선	박지연	안인숙	유정애	이선미	이정미	전영미	조혜진	한윤정
강희정	김기윤	김영자	김학운	박다복	박태용	안연선	유정희	이성숙	이주원	전점중	조희정	한은진
고은정	김대석	김영화	김해중	박명숙	박현숙	양운정	유현정	이수지	이지은	정경선	지기환	허윤정
곽 은	김미경	김예지	김형석	박미경	배명옥	염건령	윤복희	이수지	이하나	정금숙	지미선	허정호
곽중란	김미자	김윤숙	김혜경	박미라	배연옥	오교천	윤소정	이숙영	이형덕	정동일	진수경	황미례
구선자	김미진	김은희	김효빈	박미정	배옥순	오문영	윤순희	이순덕	이혜숙	정미향	차미경	황선민
구희선	김미화	김익찬	김효은	박상봉	서기남	오세임	윤연숙	이승부	이희영	정애숙	최금숙	황소영
권승숙	김삼녀	김정숙	나운주	박성은	서영심	오영민	윤 철	이승희	임무자	정지선	최미선	황은영
권은미	김세경	김정옥	남기표	박영신	서유리	오화선	이건실	이연숙	임삼례	정해원	최미영	황재훈
권태진	김세일	김지빈	남순문	박예실	소용희	우옥남	이다연	이연주	임선정	정형선	최양란	황정환
기애란	김소영	김지숙	남천희	박은경	송영숙	원범재	이미주	이영미	임선희	조미수	최인자	황진희

신입회원을 소개합니다!

안연선(김예지 회원님 어머니), 송영숙 회원님 환영합니다 ♥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개인 및 단체 후원 : 총4,365,000원(2020.07. ~ 2020.09)

이사회비 : 700,000원 / 회원회비 : 1,340,000원 / 후원회원 & 일반후원 : 2,325,000원

물품후원 : 철산2동주민센터(우산, 칫솔, 치약), 박태용(립스틱), 김경희(커피 1박스), 이연주(비타500 1박스), 최미선(플케이크, 과자), 전영미(떡케이크), 임삼례(마스크, 소독제)
황진희(비타500 1박스)

회 비 안 내

CMS 회비 납부를 신청하세요! 출금일은 25일이며, 통장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 10일 소급되어 출금됩니다.

후원계좌: 농협(099-01-018174), 기업은행(167-038891-04-017), 문자후원: #2540-1998 (1건 3000원)



광명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운동단체입니다. 모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 나아가 가정·직장·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및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을 도우며 지역사회와 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합니다.

무료 상담안내

상 담 내 용: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부갈등, 외도, 시집갈등, 청소년 문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데이트 폭력, 스토킹, 직장 내 성희롱,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문제 등

피해자 지원: 의료지원, 법률연계, 쉼터연계 등

가정폭력상담 : 02) 2060-2545

성 폭 력 상담 : 02) 2616-2545

상 담 시 간: 평일 9~18시 (점심 12~13시)

면 접 상 담: 전화상담 후 예약

인쇄장애이의 장인정신을 사랑으로 ———



광명출판 · 인쇄
도서 출판 **광명인쇄**

대 표 오 교 천

광명시 오리로 919-36 (철산4동 464-5)
T E L : **02-2619-3544 (代)**
H · P : **010-3113-4200**
F A X : 02-2618-3543
E-mail : 2619354@naver.com



변호사 서성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 성 민**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한라프라자 202호

☎ 031)365-5777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김 형 석**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2
금산빌딩 403호

☎ 02-2689-8020

문화예술콘텐츠&젠더교육 및 기획 연출 컨설팅

젠더와예술문화연구원

대표 **강 은 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

*교육분야: 문화시민교육/영화,연극/미디어/예술정책
젠더(성평등)인권/커뮤니케이션/영화영어

*협력단체: **광명큰빛영화제**(2019.11.14.~11.16)

☎ 070-8286-8650
010-3241-8650



감성초밥 스시, 공감

Sushi Bar& Resto

박 정 훈 셰프

11:30 ~ 21:30
주일, 공휴일 휴무
(Break time : 3시~4시)
인스타 @sushigonggam

경기도 광명시 성채안로 36 101호
☎ 070-5033-6107 / 010-5428-6107